

A conceptual illustration of a globe with the word 'kotra' written across its center. The globe is surrounded by various global landmarks and symbols, including the Great Wall of China, the Leaning Tower of Pisa, the Colosseum, the Eiffel Tower, the Sydney Opera House, the Christ the Redeemer statue, and the Gateway Arch. A white door is open at the bottom of the globe, suggesting a gateway to the world. The background is a light blue gradient.

칭다오 무역관

【 목 차 】

I. 칭다오[靑島] 개요 1

현황 · 1

역사 · 2

특징 · 5

韓 - 靑島 경제관계 · 6

II. 산둥성[山東省] 개요 9

현황 · 9

韓 - 山東省 경제관계 · 10

III. 산둥에서 비즈니스 하기 12

山東人 과 장사하기 · 12

칭다오 바이어 특징 · 14

IV. 참고자료 18

주요연락처 · 18

참고 사항 · 22

한국 - 칭다오 항공선박편 · 26

주요 관광명소 안내 · 29





I. 칭다오[靑島]

1. 현황

□ 면적 및 인구

- 면적 : 11,282km² (서울면적의 약 18.5배)
- 인구 : 769.56만명, 그 중 도심인구 363.9만 명(2012년말)

□ 거주민

- 한족(漢族) 및 조선족, 회족 등 38개 소수민족(시 총인구의 0.41%)
 - * 투자업체 및 상사 주재원 등 교민 : 약 5만 명
 - * 상주조선족 : 약 13만 명

□ 市정부 인사

- 시장 장신기(張新起)
- 부시장 7인(卞俊憲, 王廣正, 徐振溪, 王建祥, 黃龍華, 劉明君, 欒新)

□ 共產黨 인사 : 당위원회 서기(李群) / 부서기 (張新起, 王偉)

□ 관할지역

- 6구 (市南區, 市北區, 李滄區, 城陽區, 嶗山區, 黃島區),
- 4현급시(即墨市, 膠南市, 平度市, 萊西市)
- * 이 밖에 4개 국가급 대외개방중점구(청도경제기술개발구, 보세구,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청도수출가공구)가 있음

□ GDP(2013) : 8006.6억 위안 (전년비 + 9.6%)

□ 교역액(2013) : 수출 419.86억 달러(+2.9%), 수입 359.26억 달러(+10.9%)

□ 외상직접투자 : 2013년 11월까지 실제사용 외자 50.2억 달러(14.61%상승) 비준투자 프로젝트 수 553개



2. 역사

□ 청대(清代) 이전

- * 칭다오에 인류가 거주한 시기는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감. 동이(東夷)족이 산둥지역에 거주하며 타이안 다원코우(泰安 大汶口)문화, 장치우 룡산(章丘 龍山)문화를 창조하였으며, 칭다오지역에 썬리허(三里河), 동위에스(東岳石) 문화유적을 남김. 周왕조 (BC770~256)시대에 이르러 지모(即墨)란 지명으로 불리며 칭다오의 역사가 시작되었음.

□ 식민지 시대

- * 1891년 청(淸)나라 광서제(光緒帝)가 칭다오에 교오(膠澳) 진지를 설치하여 칭다오 지배를 시작함.
- * 1897년 11월 이른바 삼국간섭의 대가로 독일이 교주반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며 교오(膠澳)를 강점한데 이어 1898년 3월 6일 청나라와 독일이 '교오조계조약(膠澳租界條約)'을 체결함에 따라 교오가 독일의 조계지(租界地)가 됨.
- *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후 1914년 11월 일본군이 교오(膠澳)를 침공, 점령한 후 일본 식민지로 통치됨.

□ 중일전쟁 시대

- * 1919년 '5. 4 운동'으로부터 촉발된 중국 민족주의의 흥기로 1922년 2월 4일 당시 북양정부(北洋政府)와 일본 사이에 '해결산동현안조약(解決山東懸案條約)'이 체결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10일 중국정부로 교오(膠澳)가 반환됨.
- * 1929년 4월 국민당 정부가 교오(膠澳)를 점령한 후, 같은 해 7월 '칭다오(靑島)'시로 지명을 변경함에 따라 칭다오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함.



- * 1938년 1월, 일본이 재차 칭다오를 침공, 중일전쟁 종전까지 지배하다가 1945년 9월 국민당 정부가 미군의 지원 하에 칭다오시를 되찾고 특별시로 삼음.

□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후

- *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직전인 1949년 6월 2일, 칭다오시를 되찾은 중국 정부는 칭다오시의 행정구역을 산둥(山東)성 관할시로 변경함.

□ 개혁개방 시대

- * 81년 국무원에 의해 전국 15개 경제중심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는데 이어 84년 14개 중국 연해 개방도시로 지정되어 칭다오 경제기술개발구의 건설이 착수됨.
- * 86년 10월에는 국무원에 의해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성(省) 수준의 일급 행정구 관할에 속하지만 성 레벨과 같은 경제관리 권한을 부여 받은 도시)로 선정, 자체적인 경제관리 권한을 부여 받는데 이어, 94년 2월에는 전국 15개 부성(副省)급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됨.
- * 심천 등 광둥에는 홍콩기업, 화교의 투자가, 복건에는 대만기업, 대련에는 일본기업의 투자가 집중된 데 반해 칭다오에는 한국의 투자가 활발했고 이는 곧 칭다오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함.



[靑島 명칭의 유래]

바다를 끼고 있는 노산에서 나는 광천수로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를 갖고 있는 물의 도시 칭다오, 분명 물이 풍부한 도시이긴 하지만 분명 섬이 아닌 산둥반도에 자리잡은 중국 대륙의 일부분인 이 지역에 왜 하필이면 칭다오(靑島)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칭다오 서해안을 따라가다 보면 ‘소청도’라는 조그마한 섬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이 작은 섬이 아주 푸르러 사람들이 이곳을 푸른 섬이라는 뜻의 ‘칭다오’라고 불렀다는데서 지금의 칭다오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설화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 명칭의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섬에 한 어부가 살았는데 하늘에 사는 선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서로 이루어 질수 없는 비밀스런 사랑에 나누던 두 사람은 결국 신의 분노를 사게 되고 사랑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선녀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 선녀가 죽은 이후에 선녀가 생전에 님을 기다리며 연주하던 비금소리가 이 섬 주위에서 들리곤 하여 사람들은 이곳에 ‘아름다운 비금의 섬’이라는 의미에서 ‘금도(琴島)’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금이라는 발음(qin)이 중국어로 청(qing)이라는 소리와 거의 비슷하여 오랜 세월 입을 타고 전해 지다가 지금의 칭다오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칭다오의 對韓감정]

칭다오는 우리 투자기업의 최대 집중지로, 한때 우리나라 대중투자의 1/3이 칭다오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였다. 이에 따라 칭다오시 정부를 포함한 칭다오 시민들은 한국기업의 투자가 칭다오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어느 지역보다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한국기업의 철수 등의 상황으로 인해 다소간의 반한감정도 생기고 있어, 칭다오의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감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한층 필요한 시점이다.



3. 특징

□ 구룡의 도시

- * 칭다오는 구룡이 많은 동고서저(東高西低) 지형이며 남북이 높고 중간 지역이 다소 낮음. 칭다오의 총 면적 중 산간지대가 15.4%, 구룡지가 25.1%를 차지, 중국 타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전거를 칭다오에서는 보기 힘든 편임.

□ 환경도시

- * 칭다오는 중국의 환경 모범도시로 시 면적의 37%가 녹지이며 시내에 총 37개 공원을 가지고 있음. 일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m^3 당 $191\mu\text{g}$ 에 불과할 정도 (중국 평균 $320\mu\text{g}$, 한국 서울 $55\mu\text{g}$)로 중국인들이 손꼽는 이상적인 청정 주거 도시임.

□ 중국 대륙속의 유럽

- * 칭다오는 1897년 독일에 점령된 이래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며, 또한 러시아의 영향도 강하게 받음. 이러한 외세문물의 영향은 도시를 급속도로 성장시켰고 도시 전체는 중국이 아닌 유럽의 한 도시를 연상시킬 정도로 다양한 유럽풍의 이국적인 건물들이 들어서게 됐음.
- * 이제 이 다양한 건물들과 마을들은 유용한 관광자원이 되었음. 러시아촌, 일본촌 등이 그 예로, 한 때 일본촌을 모두 철거했으나 일본인 관광객이 늘면서 다시 복구하기도 하였음.



4. 韓-靑島 경제관계

4.1. 한국기업 진출 현황

□ 칭다오에 3,329개 한국기업 운영 중(2012년말 공상국 통계)

- *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둥성은 한국기업의 對中 투자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이며 특히 칭다오는 산둥성의 주요 투자 거점임. 한국기업의 칭다오 투자 진출은 양국 수교전인 1989년 토프톤전자 설립을 효시로 지속적으로 활발해짐.
- * 또한 1989년 청도 다산인조약세사리가 청도에 설립. 현재까지 약세사리업체가 청도에 다수 진출하여 중국 최대, 아시아 주요 한국약세사리 생산기지로 부상함.
- * 주요 투자항목으로는 섬유, 의류, 식품, 피혁, 완구, 공예품, 기계, 화공, 전자 등이며, 칭다오시 7개 시구와 5개 현급 시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2012년 기준 3,329개 기업이 운영 중으로 이는 산둥성 진출기업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치임.

[칭다오 진출 주요 한국기업]

전자	LG전자, 신도리코, 삼영전자	상사	삼성물산, SK네트웍스, 대우인터내셔널
철강	POSCO, 고려제강, 포스코스텐레스	신발	창신INC, 태광, 세원
섬유	영원무역, 남영나이론	금융	기업, 하나, 신한, 부산
화학	GS칼텍스, SK케미컬	기타	세정악기(피아노), 현대종합상사(조선), 오로라월드(완구), 팬코(의류), 뉴센추리, 롯데마트, NHN(개발센터)
기계	현대기계		

(자료원: 칭다오무역관)



4.2. 한국기업의 對칭다오 투자 특징

□ 연관 산업군 형성

- * 칭다오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은 신발, 화섬, 전자, 완구, 공예품 등 연관 산업군을 형성, 관련 업종 기업이 지속 투자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노동집약형에서 자본, 기술집약형 투자로 전환

- * 지금까지 한국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제화, 방직복장, 포장, 완구 등 항목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전자, 화공, 자동차부품 등이 증가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력도 지속적으로 제고(提高)되고 있음. 그동안 한국기업의 칭다오 투자 프로젝트 건당 금액이 100만 달러 이하였던 것이 2003년을 기점으로 100만 달러를 상회함. 이는 POSCO, 고려제강, 효성, LG 등이 계약액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한데 기인함.

□ 칭다오시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

- * 2013년 6월까지, 청도시 한국기업 프로젝트 수는 11,264개로 청도시 외국기업 프로젝트 총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 * 이외에도 한국기업은 선진 생산기술 및 경영관리 방식과 기업문화를 소개, 칭다오시의 기업구조와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對칭다오 주요 투자국가 - 계약기준]

(단위: US\$ 억)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한국	251	3.8	288	5.2	217	4.2	188	12.4
홍콩	162	7.3	174	12	242	34.0	152	23.4
일본	43	0.7	64	1.3	61	2.6	51	5.1
미국	36	0.8	38	1.7	28	2.0	24	2.9

(자료원: 칭다오통계공보) ※ 2013년 자료는 2014년 6월이후 업데이트 가능.



4.3. 무역 현황

□ 한국은 칭다오의 1위 교역 파트너

- * 한국은 칭다오의 제1 수입국이자 제3 수출국임. 2012년 한국 - 칭다오 간 수출입 총액은 78.95억 달러였으며 그 중 한국으로부터 칭다오로 수출한 금액은 38.8억달러, 칭다오로부터의 수입액은 40.2억달러로 나타남

[칭다오 對한국 교역 현황]

(단위: US\$ 억)

국별	수출액			수입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한국	34.8	40.0	40.2	47.4	46.6	38.8
일본	51.4	61.8	63	23.2	27.4	22.45
미국	62.0	72.5	71.8	24.6	22.7	21.9

(자료원: 칭다오통계공보, 칭다오시 대외무역경제합작국)

※ 2013년 자료는 2014년 6월이후 업데이트 가능.



II. 산둥성(山東省)

1. 현황

□ 면적 : 15.71만km²(중국면적의 1.6%, 남한의 1.5배)

□ 인구 및 민족

○ 9,637.3 만명(2011년)

* 중국 총인구의 약 7%, 하남성에 이어 2위, 39개 소수민족이 있지만, 한족이 전체 인구의 99% 차지

□ 기후 : 온대 대륙성 기후에 속함(연평균 기온 11 ~ 14℃)

□ 주요 인사

○ 성장 관수청(郭樹淸),

○ 부성장 8인(孫偉, 夏耕, 王隨蓮, 孫紹聘, 張超超, 季細綺, 趙潤田, 鄧向陽)

□ 共産黨 인사 : 당위원회 서기 강이강(姜昇康)

당위원회 부서기 관수청(郭樹淸) , 왕군민(王軍民)

□ 행정구역

○ 17개 시, 49개 시직할구, 31개 현급시, 60개 현

* 주요 도시 : 지난시, 칭다오시, 즈보시, 동잉시, 옌타이시, 웨이팡시, 지닝시, 웨이하이시 등

□ GDP(2012년) : 54.684.3억 위안 (전년비 +9.6%)

□ 교역액 : 수출 1345.1억 달러(+4.5%), 수입 1326.5억 달러(+13.5%)

□ 외상직접투자 : 2013년 실행기준 140.5억 달러(13.8% 상승)

2. 韓-山東省 경제관계

2.1. 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對山東省 투자 특징

- *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인접하여 있고 정기 해운 및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칭다오(靑島), 연태(煙臺), 위해(威海) 지역에 전체투자의 90% 이상이 집중됨.
- * 실제 투자액 기준으로 산동省内 최대의 투자국으로 국내 투자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규모 직접 투자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 의복, 전자, 기계,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형 산업에 주로 진출해 있음.
- * 최근 중국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조선, 자동차, 화공 등 대형프로젝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일조 위아(현대자동차엔진), 연태 대우해양조선, 위해 삼성중공업(조선) 등이 활발히 운영 중임.

[주요 투자진출업체 (칭다오 제외)]

(단위: US\$억)

지역	투자금액	업체명	지역	투자금액	업체명
연태	1억	대우해양조선	제녕	3억	대우시멘트
연태	1억	LG 디지털 이동통신	태안	1.6억	현대중공업
위해(영성)	1억	삼성중공업	제남	0.5억	SG에너지
일조	4.9억	위아엔진	요성	1.59억	CJ비아오텍

(자료원: 칭다오무역관)

[한국의 山東省 투자현황(실투자기준)]

(단위: US\$억)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2	4.3	248	7.0	199	7.1	154	5.4	365	12.0

(자료원: 수출입은행)



2.2 무역 현황

□ 우리나라의 對산동성 교역 특징

- * 한국의 산동지역 주요 수출품은 LCD 패널(90), 프로세서와 컨트롤러(85), 나프타(27),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85), 폴리에틸렌(39) 등이며, HS Code 8단위 기준 30대 수출 품목은 다음 표와 같음.
- * 한국의 산동지역 주요 수입품은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84), 방직 기계(73),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85), 기타 철강 구조물(73),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85) 등이며, HS Code 8단위 기준 30대 수입 품목은 다음 표와 같음.

[최근 한국의 산동성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액	24,523(-7.5)	30,692(25.1)	32,660(6.4)	31,670(-3.0)	32,857(3.7)
對산동성 수출	13,272(3.0)	16,562(24.8)	17,492(5.6)	17,791(1.7)	19,371(8.9)
對산동성 수입	11,251(-17.5)	14,130(25.6)	15,168(7.3)	13,879(-8.5)	13,486(-2.8)
무역수지	2,021	2,432	2,324	3,912	5,885

(자료원: KITA,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III. 산둥에서 비즈니스 하기

1. 山東人 과 장사하기

□ 의리를 중시하라(講義氣)

- * 산둥인들은 의리를 중시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음. 중국 속담에 “하북성은 마적(馬賊/ 響馬)을 낳고, 관둥(關東)은 토비(土匪)를 낳고, 산둥은 사내대장부(好漢)를 낳는다”는 말이 있음. 이는 산둥인들이 오래 전부터 의리와 신용을 주된 덕목으로 살아왔다는 반증임. 따라서 정직은 산둥인의 중요한 사람됨의 표준이 됨. 정직하지 못한 인격은 사람 노릇을 할 자격이 없으며 산둥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산둥 상인은 장사를 하면서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며, 친구에게 미안한 일을 하지 않는 전통을 지녀왔음.
- * 산둥인이 의리를 중시하는 것은 장사세계에도 그대로 표현됨. 따라서 그들과 장사하거나 교제할 때 다음을 주의해야 함. 첫째, 반드시 사내대장부의 풍모를 지니고, 의리를 중시하고, 신용을 지녀야 함. 둘째, 친구답게 의리를 중시하고 이(利)를 경시해야 함. 최소한 겉으로라도 금전이나 재물을 중시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음. 지기(知己)가 된 다음에 산둥상인과 장기 계약에 성공하여 돈을 번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음.

□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

- * 음주는 산둥인의 생활과 생존의 기초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일을 성사시킬 수 없음. 산둥 상인이 보기에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라야 능력자로 인정받음. 술 반근(半斤, 약 300g)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함. 산둥인들은 비즈니스를 하면 사무실에서는 어깨에 힘을 주고 관료의 모습을 보여주고, 본론은 술자리에서 해결함.
- * 산둥인들이 흔히 불러대는 권주가에 “감정이 돈독하면 한 입에 마셔버리고, 감정이 열으면 훌쩍거린다”는 말이 있음. 이는 감정이 돈독하면 무슨 일이든 상의할 수 있고, 감정이 열으면 무슨 일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산동인과 거래할 때 술이 없으면 대화는 매우 어색하게 됨. 술자리에서 몇몇 손님이 쓰러지지 않으면 주인의 접대가 소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산동인임. 따라서 산동에서 사업하려면 주량에 어느 정도 자신을 가져야 유리함.

□ 호탕(豪爽)해야 한다.

- * 산동인은 중국인 중 가장 호탕한 사람으로 통함. 산동인은 성질이 급하고 직설적이어서 비즈니스 담판에 미숙함. 협상자리에 앉자마자 상대방에게 히든카드를 드러내곤 함. 이에 비해 남방인들은 하루 종일 힘겨운 흥정을 진행해도 본심을 알아내기 힘들.
- * 비즈니스 담판에서 산동인은 상호간의 우의를 매우 중시하여 자신이 약간 손해 보는 것은 그리 괄념치 않음. 하지만 상대방의 속임수에 대해서는 인의(仁義)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담판과 거래를 중단할 수 있음. 따라서 산동인과 비즈니스를 하려면 산동인들이 호탕한 호한영웅(好漢英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담판을 진행할 때 솔직해야함.

□ 안정지향(四平八穩) 심리를 이용하라.

- * 산동인은 고생은 달갑게 견디지만 모험심은 없는 것으로 평가받음. 산동인들은 비록 장사에 종사하더라도 박리다매 정도까지만 하지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윤이 큰 장사를 모험하지 않으려 함. 따라서 산동인과 거래할 때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임. 산동은 경제규모가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큰 성(省)이며 큰 비즈니스 기회 또한 많은 편임. 또한 산동인의 침착하고 안정을 추구하며 박리다매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진행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음.
- * 마지막으로 산동인은 '조금 벌면 안주하는(小富即安)' 심리가 있어 한때 각광을 받는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움. 따라서 그들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기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한 편임.



2. 칭다오 바이어의 특징

중국의 교통지도책을 보면 베이징에서 시작해 광둥성까지 중국을 종단으로 가르는 굵은 교통선과 상하이에서 시작해 충칭(重慶), 청두로 이어지면서 중국을 횡단으로 가르는 또 하나의 굵은 교통선을 볼 수 있음. 이 두 개의 굵은 교통선은 우한(武漢)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우한을 중국 최대의 교통요지로 만들.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비중이 압도적인 공헌을 할 때인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에만 하더라도 주목받는 지역은 종단선의 종착지였던 광둥성의 광저우와 선전이었음. 광둥성을 통해 중국수출의 약 40% 가량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시장으로 실어나갔음. 그러나 중국이 내수시장 확대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전 세계에 공포하던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에는 상하이에서 시작되는 횡단선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함. 내수시장 확대정책으로 서부대개발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서부지역으로 대량의 물자와 장비를 수송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갖춘 상하이발 횡단선의 가치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음.

이 커다란 두 줄기의 교통선을 축으로 각 지역으로 연결되는 지(枝)선들이 이어짐. 지선간 교통선이 없지는 않으나 역시 대량수송이란 측면에서는 두 개의 교통축선을 이용할 도리밖에 없다는 것이 아직까지의 중국 현실임.

칭다오시의 바이어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교통선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결국 교통선이 물류의 흐름을 결정하고 유통시장의 권역을 구획하며, 이에 따라 바이어들의 지역적 특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임. 적어도 중국처럼 나라는 크고, 수요가 넓게 퍼져있는 국가는 이런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음.

칭다오시의 주교통선을 보면 지난(濟南)까지 지선으로 이어지고, 지난을 기점으로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이어지는 굵은 교통선을 만나게 됨. 중국의 경제개발이 지역 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개 점(點)에서 선(線)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면(面)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함.



칭다오에서 지난까지가 400km거리인데, 그 중간에 과연 수요를 발생시키는 대도시가 몇 개나 있는가 생각해보면 별로 크지도 않은 수요가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제남에서 스자좡(石家庄)까지 400여km, 상하이까지는 무려 1,000km가 넘음. 칭다오시보다 규모가 몇 배나 큰 대도시로 보내는 물량이라면, 지선 간을 통해 운송할 교통수단도 여의치가 않으며 지선으로 굵은 교통선까지 연결된다 하더라도 너무 광범위함.

교통인프라의 미비가 칭다오지역을 독립적인 소(小)유통지역으로 고립시키는 역할을 함. 더군다나 같은 화동 경제권내에 있는 상하이가 적어도 유통망에 있어서는 장쑤성 권역까지 포괄할 정도로 막강하고, 북으로는 베이징과 톈진을 묶은 화북 경제권까지 있어 이 두 거대 경제권사이에 끼인 형국인 산둥성 칭다오시는 유통망이 발달하기 어려운 경제적 위치를 하나 더 안고 있는 셈임.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칭다오시의 바이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직접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1급 대리상의 비중이 아주 낮음. 품목에 따라 1급 대리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이 2급 대리상 위주로 구성돼 있음. 배후시장이 크지 않은 칭다오시의 위치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현지시장을 조사하러 온 비즈니스맨들이 시장에 물건이 팔리고 있으므로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보다가도 수입할 바이어가 없어 당황하는 경우를 겪기도 함. 시장성과 수입 가능성이 매치되지 않는 품목이 많은 곳이 바로 칭다오임.

둘째, 소량주문을 요청하는 바이어가 많음. 다롄(大連)의 경우 다롄자체의 시장보다 다롄이 동북 3성의 유통출발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북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량수요를 받아 수입상의 역할이 커 대량주문이 발생 할 수도 있지만, 칭다오시는 사정이 좀 다름. 2001년을 기점으로 칭다오시의 GDP가 다롄시를 앞서기는 했지만, 이는 해외투자유치의 성과로 제조업부분의 발전이 앞섰기 때문이며 전반적인 경제활동 성과가 좋아서만은 아님.

세 번째는 공장으로 직접 인도를 요구하는 바이어들이 많음. 사실 무역상 개념은 극히 희박하고, 그야말로 실수요자 중심의 바이어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무역기회가 극히 적은 칭다오시의 풍토 하에서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수요를



소화해 줄 무역상이 적기 때문임. 가격도 FOB나 CIF가 아닌 공장까지 인도해 줄때의 가격 등을 요구함. 그러나 이러한 요청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님. 이전부터 홍콩이나 대만수출업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많은 무역거래를 해 오고 있으며, 이런 방식의 상담이 관례화되어 있었기 때문임.

칭다오 현지에서도 이런 바이어들의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직접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음. 소량의 엔드유저(End User)들의 주문을 받아 대리상을 통해 일괄수입한 후 직접 공장으로 납품하는 방식임. 이 경우 대금결제가 문제가 되고 불법 환전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바이어들의 수요가 그러한 만큼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는 않음.

대체로 칭다오시 바이어들의 특징을 상기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으므로 칭다오시 및 산둥성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은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제 2의 신라방, 칭다오시]

칭다오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약 5만 명가량이며 여기에 조선족도 약 13만 명 이상이므로 한국말을 사용하는 상시거주 인구는 18만명 가량으로 볼 수 있음.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 되는데, 최근 들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골프투어 등의 관광인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계절에 따라 다르긴 하나 최소 18만 명 많을 때는 최대 20~25만 명가량의 한국인이 항상 어떤 형태로든 칭다오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중국 도시 중 한국인 거주 수치로만 봐도 상위순위에 랭크되지만, 도시규모까지 염두에 둔 비율로 보면 칭다오시는 아마도 중국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한국인이 집중된 지역임에 틀림없음. 한국기준으로 보면 독립적인 시 규모의 한국인들이 있는 셈임.

이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다보니 칭다오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한국적인 색채를 많이 가지고 있음. 우선 가장 눈에 크게 띄는 것이 한국간판임. 칭다오시로 들어오는 입구인 공항에서부터 중국어와 더불어 나란히 한국어로 써



진 안내판이 걸려 있고, 시내로 들어오는 길가에서 많은 한글간판을 쉽게 볼 수 있음.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지는 한국간판이 일정지역에 몰려 있는 현상이 있으나 칭다오지역에는 전 도시에 펼쳐져 있다는 느낌을 우선 갖게 됨. 그것은 칭다오시의 규모에 비해 한국인의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함.

두 번째는 한국성향이 깊게 배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임. 한국식품이나 생활용품들은 한국인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지만 칭다오시는 그 품목부터가 다양하고 규모도 큼. 일반 식품류에서부터 온돌용의 건축자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한국제품들이 있고 다양한 유통경로가 갖추어져 있음.

세 번째로 한국인들의 상권이 크게 형성돼 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임. 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구입이 늘어나자 내부 장식 수요가 발생하고 PC, 인터넷 등의 수요도 발생하는 식인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업자, 인테리어 업체, PC 판매 및 수리, 인터넷 서비스 업무에 대한 수요로 연결됨. 식당, 술집 등은 전통적인 업종이며 칭다오시는 사주팔자, 관상을 보는 점집까지 등장하고 있음.

네 번째는 이런 한국인들의 습관이 중국 다른 어느 지역보다 현지 중국인들에게 많이 소개되고 보급돼 있다는 점임. 한국음식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도 많고 한국의 온돌효과에 난방설비로 온돌을 설치하는 중국인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칭다오시의 자연환경이나 기후조건 등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생활여건도 꽤 괜찮은 편이지만 한국인들이 장기거주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 그 중에서도 의료 및 보건시설이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비해 낙후돼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1,500여 년 전 신라 사람들의 산동성 집단 거주지였던 신라방이 문등시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지근거리에 있는 칭다오시가 현대의 신라방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임.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국과 칭다오시의 교류도 크게 늘어나고 그 밀접도도 깊어지고 있어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이나 현재까지의 상호협력성과 보완성을 고려해볼 때 두 지역 간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큼.



IV. 참고자료

1. 주요연락처

☐ KOTRA 청도한국무역관 방문안내

[직원 / 연락처]

직위	성명	휴대폰	이메일
관장	朴容珉 (박용민)	138-0895-3228	minpark@kotra.or.kr
부관장	金英万 (김영만)	139-6986-0927	jinsan21@kotra.or.kr
과장	安度建 (안도건)	135-0639-8783	dogun@kotra.or.kr
과장	高晟浩 (고성호)	139-6392-6672	sunghoko@kotra.or.kr

(주소: 靑島市 香港中路40號 旗艦大廈 15층 AHG室)

* 전화: 86-532-8388-7931 / 팩스: 86-532-8388-7935

* 무역관 관할지역: 산둥성(山東省)

* 공항-칭다오무역관 택시비 : 120위안 정도. 소요시간은 45분

☐ 주칭다오 한국 총영사관

주칭다오 한국 총영사관	대표전화	0532) 8897-6001
	주소	靑島市 嶗山區 香港東路 101號
	FAX	0532) 8897-6005
	불친절 신고	0532) 8896-6059
사증관련 문의	전화	0532) 8897-6004
	FAX	0532) 8897-2021
여권관련 문의	전화	0532) 8896-6063
	사건사고	0532) 8896-8867
기업지원 문의	기업애로	0532) 8897-6012
야간 및 휴일 당직	휴대폰	136-0898-9617



□ 중국내 총영사관

주중대사관	010) 8531-0700
	136-0103-0178
베이징 총영사관	010) 6532-6774
	136-0111-7474
상하이 총영사관	021) 6295-5000
	138-1650-9053~4
홍콩 총영사관	852) 2529-4141
	852) 9155-7254
광저우 총영사관	020) 3887-0555
	139-2518-5378
선양 총영사관	024) 2385-3388
	138-0400-6338
청두 총영사관	028) 8616-5800

□ 한인상공회

칭다오(靑島)	대표전화	0532) 8965-5313
	주소	靑島市城陽區308國道187,189號 盛文國貿大廈B座803室
	FAX	0532) 8965-5319
지난(濟南)	전화	0531) 8319-7080
	FAX	0531) 8319-7081
옌타이(煙臺)	전화	0535) 610-0700
	FAX	0535) 610-0703
웨이하이(威海)	전화	0631) 523-0050
	FAX	0631) 520-2203
웨이팡(濰坊)	전화	0536) 889-8117
	FAX	0536) 888-8227
르자오(日照)	전화	0633) 869-9006
	FAX	0633) 869-9006
더저우(德州)	전화	0534) 226-2305
	FAX	0534) 226-2306
즈보(淄博)	전화	0533) 619-6601
	FAX	0533) 619-6603



☐ 공공서비스 전화

전화번호안내	114	의료긴급구조	120
범죄신고	110	교통사고	122
화재신고	119	날씨안내	12121

☐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

데이콤통신	108826
온세통신	108827
한국통신	108821

☐ 교통

칭다오 국제공항	0532) 96567	칭다오 여객선선착장	0532) 8261-9279
칭다오 기차역	12306	지난 공항	0531) 96888
칭다오 버스터미널	0532) 8371-8060	웨이하이 공항	0631) 864-1172
칭다오 교통안내	0532) 8281-7777	옌타이 공항	0535) 629-9666

☐ 항공사, 항공회사

대한항공	0532) 8378-7024 400-658-8888	아시아나	0532) 8667-7171
	青島市 市南區 香港中路40號 旗艦大廈10樓		青島市 香港中路 76號 頤中假日大酒店 6樓
일본항공	4008-88-0808	칭다오 위동항운	0532) 8280-3574
중국국제항공	0532) 8597-6181	웨이하이 위동항운	0631) 522-6173
남방항공	0532) 8869-8255	동방항공	0532) 8307-0535

☐ 병원

명인다솜병원	0532) 8612-3118	아산병원	0532) 8608-6070
영호병원	0532) 8572-3231	좋은치과	0532) 6691-2978
영호종합클리닉	0532) 8573-3231	외국인전용병동	0532) 8281-3692
열린 한방병원	0532) 8490-6575	홍익치과	0532) 8772-8175



한식당

자하문	0532) 8591-8808	본가	0532) 8889-2200
흥부명가	0532) 8801-1080	해랑	0532) 8575-6237
고바우	0532) 8589-7682	청원	0532) 8573-5400
금수강산	0532) 8571-7811	경복궁	0532) 8387-6030
코리아	0532) 8596-9888	동해바다	0532) 8889-0389
돈꼬레	0532) 8097-8899	안박사면옥	0532) 8922-6339

칭다오 주요 호텔

5성	인터컨티넨탈(海爾洲際)	0532) 6656-6666
	상그리라(香格裡拉)	0532) 8388-3838
	청도 Kylin Crown Hotel(青島麒麟皇冠酒店)	0532) 8889-1888
	해경화원(海景花園)	0532) 8587-5777
	청도리징호텔(青島麗晶大酒店)	0532) 8588-1818
준5성	크라운프라자(頤中皇冠假日)	0532) 8571-8888
	청도남해호텔(青島藍海大飯店)	0532) 8899-6666
	농해원(弄海園)	0532) 8889-0394
	잔교왕자(棧橋王子)	0532) 8289-9600
4성	홍일(紅日賓館)	0532) 8162-3080
	청도하이칭호텔(青島海情大酒店)	0532) 8596-9888
	Housing International Hotel (青島豪森府邸国际酒店)	0532) 8503-0740
	오션와이드 엘리트(泛海名人酒店)	0532) 8299-6699
	The Queens Hotel(快通國際酒店)	0532) 8922-7208
	가든호텔 VIP 하우스(花園大酒店)	0532) 8399-0888
준4성	Copthorne Hotel(國敦)	0532) 8668-1688
	덕보화원(德寶花園)	0532) 8589-9898
	북해호텔(北海賓館)	0532) 8386-8888
	산부호텔(山孚大酒店)	0532) 8399-3888
	복성호텔(複盛大酒店)	0532) 8490-0000
3성	동방항공(東方航空大廈)	0532) 8573-7888
	청도호텔(青島飯店)	0532) 8578-1888
	산둥해운국제상무호텔(山東海潤國際商務酒店)	0532) 8666-9566
	청도전산화원호텔(青島湛山花園酒店)	0532) 6889-9888
	일광해양호텔리조트(日光海岸別墅酒店)	0532) 8888-5683



2. 참고사항

□ 택 시

- * 시내가 좁고 지하철이 없어 택시 이용이 보편적. 보통(普通)택시 기본요금은 10위안(유류할증료 1위안 포함)이며, 호화(豪華)택시 기본요금은 13위안(유류할증료 1위안 포함). 12km/h이하 속도로 5분 경과시 매 5분마다 1.4위안이 부과됨. 야간 할증요금(22:00~04:00) 시간에는 1km당 1.8위안의 할증요금이 부과됨. 3km 이내는 기본요금이 적용되며, 칭다오 시내를 좁아 아무리 멀어도 50위안이면 충분함.
- * 택시요금 바가지는 거의 없으나, 미터기를 꺾지 않고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 사전에 주의가 요망됨. 특히, 공항에서 손님을 태울 때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함.
- * 택시 앞좌석에는 고유번호가 적혀 있는데, 물건을 분실하였거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 이를 기억했다가 신고하면 해결이 용이함.

□ 전 화

- * 시내 공중전화 및 거리 매점에 유료전화가 있으나 장거리 전화 사용은 불편하기 때문에 로밍이 가장 편리함. 인천 공항에서 국제 유심카드 구입 가능.

□ 치 안

- * 중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손꼽히며 범죄율이 매우 낮으나, 야간에 시내 뒷골목이나 시 교외 등의 출입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함.

□ 환전 안내

- * 한국 은행에서 현지 은행으로 송금 받는 방법
- * 한국 내 중국은행에서 교환 후 중국 내에서 인출하는 방법
- * 국제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인출 :Citi bank, HSBC, Standard Chartered Bank, 한국은행의 BC카드 중국통(通)카드 사용

* 환치기 상에서 불법으로 교환 : 환치기 상의 한국 은행에 돈을 입금한 다음 액수만큼 위안화를 지급받음, 수수료를 줄일 수 있으나 위험이 따름

* 환율 (RMB 1위안 기준 / 기준일 2014.02.13)

매수(현찰)	매도(현찰)	매매기준율
187.76	166.71	175.48

□ 여권 재발급

* 재발급 신청할 경우

여권 분실 및 멸실, 여권 훼손, 여권 만재(사증란 부족), 인적 사항 변경

* 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재직증명서(미소지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대체), 영업허가증 사본,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사진 부착면, 최근 사증이 찍힌 페이지), 호적등본 1부(만 14~18세 처음으로 신원 조회 시)

* 재발급 사유별 추가 제출 서류

사유	추가 제출 서류	비고
분실 또는 멸실	여권분실 증명서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발급
	분실 사유서	양식 당관 비치
인적사항 변경	변경 또는 정정 사유서	
	증빙서류	
여권 유효기간 만기	여권 재발급 신청 혹은 유효기간 연장신청	최소 1개월 전에 신청

* 처리 소요 기간 및 수수료

- 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 49위안 [소요 기간 1~2일(특수한 경우 1~2주 소요)]

* 여권발급 수수료

- 유효기간 10년: 385위안

- 유효기간 5년: 만8세 이상~18세 미만 329위안, 만8세 미만 245위안

- 유효기간 5년 미만: 105위안



☐ 숙박 관련 유의사항

- * 호텔, 학교, 회사 및 기타 장소에서 숙박하고자 할 경우, 여권 또는 체류 증명서를 제시하고 임시 숙박등록을 기록, 공안에 신고해야 함
- * 호텔에 투숙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호텔측에서 신고절차를 대행
- * 개인주택에 투숙하는 경우 가택주의 신분증 또는 여행자여권, 부동산증명서 등을 보유하고 기한내(도시지역은 24시간, 농촌지역은 72시간) 공안에 임시숙박 신고
 - 미신고 시 강도·절도 등 피해 발생 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적발됐을 시, 500위안 정도의 벌금을 지불해야함.

☐ 출입국 세관관련

- * 외국 관광객들은 입국 시 반드시 <여행수하물신고서>를 기입하여 세관에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 * 외국관광객이 휴대 입국 할 수 있는 개인물품은 알코올음료 1500ml, 담배 400개비를 포함 합리적 수량으로 제한되며 면세로 통과됨
- * 세관의 등록 후 세관 통과 휴대 가능 물품은 귀국 시에도 반드시 휴대하여 귀국해야 함 - 손목시계, 카메라, 녹음기, 캠코더, 동영상 촬영기 등
- * 중국에서 구입 한 보석류, 장신구, 공예품, 가전제품 등을 휴대하여 출국할 경우 구매 영수증에 인감을 찍어 보관했다가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적인 사항

- * 전화 신고: 사고 발생 즉시 122 혹은 110으로 신고
- * 현장 보존 및 증거, 증인 확보: 목격자, 인명 피해 정도, 차량 파손 상태, 관련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 기록
- * 보행자 사고의 경우



- 사고 충격 지점, 부상부위, 주변에 횡단보도, 육교, 신호등 설치 여부 등 확인
- 보행자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지점 확인이 매우 중요

* 택시 승객의 경우

- 택시 승객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어 택시회사나 기사가 보상책임을 부담
- 택시번호, 기사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확보

* 공안 측의 처리

- 현장 도착 후 신원 파악 및 현장 조사~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을 감수해야 함
- 공안은 사고 혐의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당사자의 면허증을 압수할 수 있음
- 공안은 사고조사 후 누구의 과실이 몇 %인가를 결정하며 그 내용을 사고당사자에게 통보
- 공안의 1차 조사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는 상급 공안 기관에 이의 제기 가능

* 보험회사의 배상 관련 안내

- 사고 발생 후 보험 회사에 통보, 쌍방 합의된 경우 본인이 통보 여부 결정
- 음주, 음독 약물복용,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은 보험 미적용

□ 항공권 분실

- * 공안국 외사처에서 발급받은 폴리스 리포트를 들고 항공사로 가서 발급 (폴리스 리포트는 필수사항)

- * 경우에 따라 30~50달러 정도의 재발행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 * 소요 시간은 약 일주일이므로 시간이 없는 경우 편도 항공권을 끊어 귀국한 후 분실한 항공권의 탑승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



3. 한국 - 칭다오 항공 · 선박편 안내

□ 항공편

편명	출발지	도착지	요일	출발시간 (현지시간)	편명	출발지	도착지	요일	출발시간
KE846	칭다오	서울	매일	10:45 (09:45)	KE845	서울	칭다오	매일	09:05
MU2033	칭다오	서울	매일	11:00 (10:00)	MU2044	서울	칭다오	매일	08:30
KE5844	칭다오	서울	매일	11:00 (10:00)	CA134	서울	칭다오	매일	08:45
CA127	칭다오	서울	매일	11:30 (10:30)	OZ6819	서울	칭다오	매일	08:45
OZ6818	칭다오	서울	매일	11:30 (10:30)	SC134	서울	칭다오	매일	08:45
SC127	칭다오	서울	매일	11:30 (10:30)	OZ317	서울	칭다오	매일	09:00
OZ318	칭다오	서울	매일	11:35 (10:35)	CA5010	서울	칭다오	매일	09:00
CA5009	칭다오	서울	매일	11:35 (10:35)	SC137	서울	칭다오	매일	09:00
SC318	칭다오	서울	매일	11:35 (10:35)	MU8359	서울	칭다오	매일	09:45
MU8360	칭다오	서울	매일	12:25 (11:25)	KE841	서울	칭다오	매일	13:10
SC4081	칭다오	서울	매일	13:15 (12:15)	MU8361	서울	칭다오	매일	13:10
OZ6706	칭다오	서울	매일	13:15 (12:15)	MU2034	서울	칭다오	매일	13:15
CA4081	칭다오	서울	매일	13:15 (12:15)	KE5843	서울	칭다오	매일	13:15
MU559	칭다오	서울	매일	14:40 (13:40)	CA128	서울	칭다오	매일	14:00
KE5842	칭다오	서울	매일	14:45 (13:45)	OZ6817	서울	칭다오	매일	14:00



KE842	칭다오	서울	매일	15:50 (14:50)	SC128	서울	칭다오	매일	14:00
MU8362	칭다오	서울	매일	15:55 (14:55)	OZ347	서울	칭다오	매일	14:15
OZ320	칭다오	서울	매일	17:10 (16:10)	SC4082	서울	칭다오	매일	15:25
MU2043	칭다오	서울	매일	18:55 (17:55)	OZ6705	서울	칭다오	매일	15:25
CA133	칭다오	서울	매일	20:00 (19:00)	CA4082	서울	칭다오	매일	15:25
SC133	칭다오	서울	매일	20:00 (19:00)	MU560	서울	칭다오	매일	16:40
OZ6820	칭다오	서울	매일	20:00 (19:00)	KE5841	서울	칭다오	매일	16:40
KE890	칭다오	부산	매일	14:05 (13:05)	KE889	부산	칭다오	매일	11:05

선박편

* 인천 - 칭다오 시간표/ NEW GOLDEN BRIDGE V (주 3회 칭다오 출항)

위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인천			도착 11:00 ◆출발 17:00		도착 11:00 ◆출발 17:00		도착 11:00 ◆출발 17:00
청도	도착 09:00	◆출발 17:00		도착 09:00 ◆출발 17:00		도착 09:00 ◆출발 17:00	

* 인천 - 칭다오 운임표/ NEW GOLDEN BRIDGE V

구분	CLASS	한국(KRW)	중국(CNY)
운임 (편도)	DELUXE ROYAL	160,000원	1,370위안
	ROYAL CLASS	140,000원	1,090위안
	BUSINESS CLASS	120,000원	890위안
	ECONOMY CLASS	100,000원	750위안



* 인천 - 웨이하이 시간표/ NEW GOLDEN BRIDGE II (주 3회 웨이하이 출항)

위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인천		도착 11:00 ◆출발 19:00		도착 11:00 ◆출발 19:00		도착 11:00	◆출발 19:00
위해	도착 09:00 ◆출발 19:00		도착 09:00 ◆출발 19:00		도착 09:00 ◆출발 19:00		

* 인천 - 웨이하이 운임표/ NEW GOLDEN BRIDGE II

구분	CLASS	한국(KRW)	중국(CNY)
운임 (편도)	DELUXE ROYAL	160,000원	1,370위안
	ROYAL CLASS	140,000원	1,090위안
	BUSINESS CLASS	120,000원	890위안
	ECONOMY CLASS	100,000원	750위안

4. 주요 관광 명소 안내

□ 칭다오 해수욕장(海水浴場)



칭다오에는 총 6개의 해수욕장이 있음. 이중 시가지와 가까운 곳은 제 1~3, 6해수욕장임. 제1해수욕장은 시내와 가장 가까우나 인파도 많고 물이 더러우며 모래가 거친 반면 제2, 3해수욕장은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인파도 적은 편임. 게다가 팔대관 일대에 자리 잡고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김. 제6 해수욕장은 기차역과 잔교 사이의 해변으로 모래사장보다는 바위가 많아 산책하기에 좋음.

□ 칭다오 맥주박물관(靑島啤酒博物館)



독일조차지 시절 전수받은 맥주제조기술과 노산의 100m 지하 광천수가 빚어낸 칭다오 맥주를 본고장에서 만날 수 있음.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칭다오 맥주의 제조 역사와 각종 자료들을 모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고풍스러운 옛건물과 현대적인 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백년 역사문화관, 맥주생산과정관, 다기능관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맥주 무료시음도 가능함.

□ 칭다오 맥주거리



칭다오 맥주거리는 시북구 등주로(登州路)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연안2로, 서쪽으로는 광요로(广饶路)에 이르며 전반 길이가 990미터에 달함. 맥주거리는 2006년 10월13일에 칭다오시 인민정부로부터“칭다오 맥주거리”로 명명되었으며 그해 12월 칭다오시 3A급 풍경구로 지정되됨. 병마개를 뿜는 맥주에서 뿜어져 나오는 맥주 거품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채색 아치형 대문을 이루고있음.



□ 소청도(小青島)



잔교와 서로 마주하고 있는 섬으로 모양이 칠현금과 같아서 금도(琴島)라고도 불림. 독일인들이 1900년에 건설하였고 1987년까지 군사기지로 이용되다가 최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면서 칭다오의 필수 관광지로 알려져 있음. 특히 섬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등대에서 즐길 수 있는 야경과 산동 남쪽에서만 자라는 노란 백합으로 꾸며진 정원이 유명함.

□ 팔대관(八大關)



‘팔대관’이라는 명칭은 이 지역에 중국의 유명한 관문의 이름을 딴 8개의 길인 산해관로(山海關路), 가옥관로(嘉峪關路), 함곡관로(涵谷關路), 정양관로(正陽關路), 무승관로(武勝關路), 녕무관로(寧武關路), 자형관로(紫荊關路), 거용관로(居庸關路)가 있었던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소관로(韶關路), 임회관로(臨淮關路)가 추가 건설되어 현재는 총 10개의 길이 팔대관 지역과 인근을 연결하고 있음.

- * 팔대관의 매력은 건축물에 있으며 ‘만국 건축 박람회’라고도 칭해 짐. 이곳에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덴마크, 일본식 등 200여개의 건축물들이 모두 24개 국가의 건축 양식을 표현하고 있음. 모든 건축물들은 자국의 건축 풍격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칭다오를 찾는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하나임.

□ 잔교(棧橋)



칭다오의 상징인 잔교는 중산로(中山路)의 남단에 위치해 있음. 1891년 처음 세워졌으며, 1931년에 해군 전함을 정박시키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기 위해서 거대한 규모로 재건축되었음. 현재 총 길이가 440m이며, 폭이 10m로 다리의 양쪽에는 철 난간과 연꽃 무늬의 램프가 놓여져 있음. 부두의 한쪽 끝에는 원형 방파제가 서 있어서 파도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함. 방파제 위에는 24개의 붉은색 기둥이 인상적인 ‘회란각(回瀾閣)’이 있는데,

회란각 꼭대기는 황금색의 유리기와로 덮여있고, 2층은 고리모양으로 되어 있어 이곳에서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와 누각을 바라볼 수 있음.

□ 5.4광장(5.4廣場)



시정부청사 남쪽, 홍콩로와 동해서로 사이에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임. 광장의 오른쪽 해변로는 해변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음. 광장 중앙에는 “오월의 바람”이라는 이름의 조각품이 서 있는데, 바람이 부는 모습에 낙엽의 색채를 입혀 표현한 것으로 5·4운동의 반제국 애국주의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서 민족역량의 증진을 상징하고 있음.

[5.4 운동]

1919년에 발발한 반제(反帝), 반봉건(反封建) 운동으로 중국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구분하는 新민주주의 시작의 지표로 평가된다. 1919년 6월,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전승국인 일본·영국·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은 베르사유에서 이른바 ‘베르사유조약(凡爾賽條約)’을 체결하고, 독일이 중국 산둥성에서 누리고 있던 권익을 일본에게 이양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약 체결 전 이 사실을 접한 베이징의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5월 4일 천안문 광장으로 모여들어 대대적인 파리강화조약 서명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에 북양군벌(北洋軍閥) 정부가 시위 주동자들을 체포하며 즉각 저지에 나섰으나 이는 오히려 항의시위 운동이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북양군벌 정부가 구속된 학생들을 석방하고 파리강화조약 서명을 거부하게 되면서 5.4 운동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향후 중국 공산당 탄생의 발판이 되었다.

□ 노산(嶗山)



노산은 “태산이 아무리 높다한들 동해의 노산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의 명산 중 하나로 꼽힘. 칭다오 시내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져 황해에 바로 인접해 있으며 최고봉의 높이는 해발 1,132.7m, 총 면적은 446km²임

- * 옛날에는 도교의 본거지라고 여겨질 만큼 노산의 도교 사원은 매우 유명함.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할 목적으로 노산에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산 곳곳에 남아 있는 비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줌.



□ 영빈관(迎賓館)



1903년에 세워진 독일 총독의 관저. 독일의 성을 그대로 모방하여 지어진 전형적 독일식 건물로 신호산 남쪽기슭에 자리잡고 있음. 건축 당시 은 245만 냥이 사용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당시 총독이 독일로 송환되었다는 일화가 있음. 면적 4,000㎡에 4층으로 건축되었으며 호화로운 장식과 아름다운 조형으로 중국 건축물 중에서도 명성이 높음.

□ 천주교성당(天主敎堂)



浙江路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4년 건축됨. 독일이 남기고 간 대표적인 유산.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파괴한 것을 개방 직후인 1981년 복원하였으며 현재 예배도 허용됨. 쌍둥이 첨탑이 인상적이며 면적 2,470㎡, 높이 60m로 장엄한 멋과 아름다움을 지닌, 중국 주요 성당 중 하나임.

□ 기독교회당(基督敎堂)



칭다오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럽풍 건물 중 하나. 1908년 江蘇路에 건축된 독일식 건물로 종탑과 예배당 2개 부분으로 구성됨. 종탑 위에는 100년 짜 작동하는 시계가 있음. 좋은 전망으로 인해 사진촬영을 많이 하는 관광지.

□ 노신공원(魯迅公園)



1929년에 지어진 해변 공원. 중국의 저명한 작가 노신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원래 이름인 해변공원에서 노신공원으로 명명됨. 해변과 조화를 이룬 기암괴석과 소나무 숲의 조화, 조용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에 하얀 파도가 우거진 소나무 숲, 붉은 암석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이룸.

□ 곡부(曲阜)시 - 산둥성



공자가 태어난 곳으로 유교의 총 본산. 공자를 기리는 사당인 공묘는 공자 사후 1년 뒤인 기원전 479년에 세워진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음. 공자의 후손들이 대대로 거주하던 곳인 공부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임. 공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족묘로서 현재 200만㎡에 이르며 부지 내에 3,600여 개의 석비, 10만 그루의 나무가 있어 삼림욕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도 많음.

□ 제남(濟南)시 - 산둥성



산둥성의 성도. 중국 문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황하 강 하류 최대의 도시. 산둥성 박물관, 마애불로 유명한 천불산, 천하제일 샘으로 불리는 표돌천이 대표적인 관광명소임. 천성광장은 제남의 상징이자 개혁 개방 이후 경제개발에 성공한 산둥성의 야심작으로 평가 받고 있음. 전체적으로 조용하게 여유를 갖고 돌아볼 수 있는 관광지가 주를 이룸.

□ 태산(泰山) - 산둥성



산둥성 중부 태안(泰安)시에 위치, 해발 1,545m, 총면적 426km²로 중국인들이 명산으로 꼽는 오악 중 동악(東岳)으로 불림. 역대 황제들이 하늘과 땅의 신에게 자신의 치적을 보고하는 봉선의식을 행한 신성한 산으로 추앙 받고 있으며 오악 중 가장 빼어난 경치와 능름한 기세를 자랑함. 198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됨.

[참고1: 산둥성 지도]



[참고 2: 칭다오 주변 지도]





[참고 3: 칭다오 지도]

